

번역, 공동의 글쓰기*

- 표절 현상 속의 번역 규범

정혜용**

1. 윤리적 관점의 한계
2. 실증적 선행연구 두 가지
3. 창작에서의 표절, 번역에서의 표절
4. 번역과 표절의 경계
5. 근대 계몽기와 번역의식의 형성
6. 번역, 공동의 글쓰기

〈국문초록〉

현재 학계에서 생산된 표절에 관한 이론적 담론 대부분은 윤리적 관점을 채택하고 있다. 그런데 윤리적 관점을 고수할 경우, 번역윤리의 부재를 보여주는 표절은 윤리적 단죄의 대상이 될 뿐이어서, 왜 표절 관행이 한국 번역의 역사에서 그토록 오랜 기간 존속할 수 있었는지, 표절이라는 복잡한 번역현상 속에서는 어떠한 번역이데올로기가 작동하고 있는지, 선행번역본을 단순 모방한 표절본과 선행번역본을 모방하는 동시에 개선한 표절본을 표절이라는 단일한 카테고리로 묶어도 되는지 등, 표절이라는 복잡한 번역현상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로 나아가는 길 자체를 막아버리게 된다.

이 글은 윤리적 관점에서 벗어나 표절이라는 특수한 번역현상을 한국

* 이 논문(저서)은 2011년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NRF-2011-327-A00688)

** 서울대학교

번역사의 흐름 속에서 바라봄으로써, 끈질긴 생명력을 보여준 표절이 근대 계몽기에 형성되었던 독특한 번역 이데올로기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주제어 : 표절, 번역이데올로기, 번역의 윤리, 근대 계몽기, 번역규범

1. 윤리적 관점의 한계

한국의 출판 산업은, 한국이 1987년 국제저작권 조약에 가입하고 WTO 협정이 1995년 7월에 발효된 뒤로, 피해갈 수 없는 구조 변화에 직면하게 된다. 신간서적의 경우 중복출판 자체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지게 되었고, 따라서 중복출판의 틈바구니 사이에서 독버섯처럼 피어나던 표절이라는 관행은 그 기세가 확연히 수그러들게 된다. 오랜 기간 암묵적으로 용인되어오면서 좀처럼 근절될 것 같지 않던 음지의 관행이 국제 조약의 효력 앞에서 마침내 무장해제 당한 셈이다. 문학 번역 작품을 생산하는 입장에 있든 소비하는 입장에 있든, 능동적 주체이든 수동적 주체이든 간에, 우리 모두가 어떤 식으로라도 번역풍토 형성에 관련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우리 모두의 책임이자 치부로 인식되는 표절 관행이, 이제 번역 역사의 갈피 속으로 조용히 잤아든 듯하다. 이러한 시점에서 왜 우리는 오랜 동안 터부시 되었고, 여전히 껄끄럽기만 한 표절 문제를 굳이 다시 들춰내려고 하는가?

현재 학계에서 생산된 표절에 관한 대부분의 이론적 담론은 표절 관행의 윤리적 측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윤리적 잣대를 들이댈 경우, 번역 윤리의 부재를 보여주는 표절은 무엇보다도 비난받아 마땅한 비윤리적 행위이다. 또한, 표절로 분류되는 작품들이 한국 번역계가 생산한 문학 번역작품들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만큼, 우리 번역사의 많은 부분이 유감스럽게도 뒤돌아보고 싶지 않은 수치스러운 과거가 되어버린다.

그런데, 윤리적 관점만으로는 왜 표절 관행이 한국 번역의 역사에서 그토록 오랜 기간 존속할 수 있었는지, 그 현상의 근저에는 어떠한 동인들의 상호작용이 있었는지, 그리고 어떠한 번역 이데올로기가 관여하고 있었는지 등, 한국의 문학번역사의 주요 부분을 해명해줄 열쇠를 쥔 표절이라는 복잡한 현상에 대한 우리의 궁금증을 풀기에 역부족이다. 이는 우리가, 표절 관행이 역사의 뒀안길로 사라져가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표절을 번역사의 한 장으로 갈무리해버리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윤리적 관점에서 벗어나 표절 현상을 다시 생각해보려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이다.

또한, 표절 관행은 과거가 되어가고 있다손 치더라도 그 결과물들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라는 사실을 지적하고 싶다. 특히나 표절이 가장 활발하게 일어났던 고전 번역은 현행 국제저작권법에 저촉되지 않기 때문에 더더욱 그러하다. 한번 소비되고 나면 그 수명을 다하기 마련인 대다수의 번역물들과 달리 고전의 번역 작품들은 원작의 생명력에 힘입어 보다 오랜 기간 유통되고 소비된다. 더욱이 현재 출판계를 휩쓸고 있는 세계문학전집 출간의 유행으로 새로이 번역된 고전뿐만 아니라 과거에 번역된 고전 역시 고전번역 시장의 확대 추세 속에서 새로이 자신의 자리를 찾아내고 있는 실정이다. 설령 표절 관행과 표절의 결과물들이 한국 번역계에 미치는 현재적 영향이 미미하다하더라도, 한국 번역사의 질곡과 모순의 집결체라고도 할 수 있는 표절 현상이 우리의 문학번역사에서 차지하고 있는 묵직한 비중만으로도, 표절 현상에 대한 윤리적 단죄를 넘어서는 번역학계의 진지한 관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실정이다.

2. 실증적 선행연구 두 가지

한국 번역 역사의 출발점은 근대 계몽기부터 친다 해도 19세기 말로까지 거슬러 올라가는데¹⁾, 학계가 표절 현상에 관해 진지한 관심을 기울이

1) 번역문학사 연구의 선구자라고 할 수 있는 김병철은 근대번역문학사의 시기를, 제1기 계몽기 활동의 준비시기(1895-1917), 제2기 번역문학 각성시기(1918-1925),

기 시작한 것은 고작 2천년대 들어서이다. 그간 학계나 현장 혹은 언론에서 생산된 표절에 관한 담론들 대부분은, 이론적 깊이나 폭을 보여주기도 않는 지나가는 말로 표절에 관해 언급하거나 혹은 표절에 관한 문제제기에서 출발하여 한국 번역계의 자성을 촉구하는 것으로 끝을 맺곤 했다.²⁾ 하지만 최근 들어 번역을 둘러싼 상황은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다. 번역학이라는 학문이 제도권에 자리 잡기 시작하면서, 연구자 집단에 의한 혹은 개인 연구자에 의한 번역평가 및 번역비평 작업이 시작되었고, 그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표절에 관한 연구 성과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표절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로는 영미연 번역평가 사업단과 프랑스 명작소설 번역평가 사업단의 작업을 꼽을 수 있다. 영미문학연구회 번역평가 사업단이 해방이후부터 2003년 7월 사이에 출간된 영미 고전 번역 작품들을 대상으로 번역평가 사업을 실시하고 2004년에 결과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여러 가지 흥미로운 통계수치들이 드러났다. 그 중에는 우리의 관심사인 표절에 관한 통계도 들어있다. 사업단은 번역 작품들 간의 계보를 추적하여 전체 검토본 572종 가운데 무려 310종이 표절본임을 밝혀냈다. 이 수치를 백분율로 환산하면 표절본과 비표절본의 비율은 54% 대 46%가 된다.³⁾ 표절본이 절반을 넘는다. 무성한 소문을 통해서 표절 관행에 대한 심증을 갖고 있었다고 해서 표절의 실체를 구체적으로 확인시켜주는 이 적나라한 수치가 덜 당혹스러운 것은 아니다.

프랑스 고전 번역 쪽도 사정은 마찬가지이다. 2008년부터 2011년까지 프랑스 고전 번역평가 사업을 진행했던 프랑스 명작 번역평가 사업단은,

제3기 번역의 궤도가 정해지고 본격화하려는 징조가 보인 시기(1926-1935), 제4기 암흑시기(1936-1945), 제5기 재생시기(1945-1950)로 구분하고 있다. (김병철, 『한국 근대번역문학사연구』, 을유문화사, 1975, 15쪽)

- 2) 오동석은 표절에 관한 깊이 있는 연구가 진행되기 힘들었던 원인으로, 무엇보다도 “침묵의 카르텔”을 깨는 내부 고발자 역할에 대한 심리적 저항을 들고 있다. (오동석, 「표절, 침묵의 카르텔과 윤리의 침묵」, 『인물과 사상』, 인물과 사상사, 2006, 66쪽.)
- 3) 영미문학연구회 번역평가사업단, 『영미명작, 좋은 번역을 찾아서』, 창비, 2005, 31쪽.

때 작품을 구체적으로 평가하기에 앞서 예비 고찰 단계에서 번역본들 간의 계보를 추적한다. 연구단에서 펴낸 결과보고서를 보면, 출판사 편집부의 이름을 내걸거나 혹은 가공의 인물로 추정되는 역자를 내세워 다른 번역자의 작품을 그대로 출간하는 경우와, 자신의 이름을 내건 번역자가 상습적으로 다른 사람의 번역 작품을 도용하거나, 원문은 들여다보지도 않고 기존의 번역본을 가져다가 윤문만 하는 경우를 쉽사리 발견할 수 있었다는 고백을 들을 수 있다.⁴⁾ 이 연구단에서는 ‘표절’이라는 민감한 용어를 피해가기 위해서 ‘영향관계’라는 완곡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표절에 관한 객관적 사실들이 그 완곡함으로 가려지는 것은 아니다.

두 연구단의 표절에 관한 입장을 살펴보면, 표절 문제가 번역자 개개인의 윤리 의식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성질의 문제가 아님을 잊지 않고 지적한다는 공통점을 보여준다. 영미연 번역평가 사업단이 부실 번역에 대한 “영미문학계 전반의 맹성(猛省)”⁵⁾을 촉구하는 윤리적 입장을 취하면서도 출판번역산업의 후진적 구조에 대한 언급을 잊지 않는다면, 프랑스 명작소설 번역평가단 역시 다양한 유형의 표절 현상을 목도하며 번역 윤리의 정립을 촉구하는 한편, 결과적으로는 선행 번역본의 오류를 개선한 표절본들에 대해서는 긍정적 영향관계로 파악하는 유보적인 입장을 취한다.⁶⁾

사실, 이 두 연구단의 가장 큰 업적은 이처럼 번역자 집단에 대한 적당한 배려를 담은 모나지 않은 결론에 있다기보다는, 두 연구단 모두 전문 연구자들로 구성된 대규모 연구자 집단이라는 이점을 최대한 살려서 실증적인 방법에 의한 연구를 체계적으로 진행하였고, 뒤에 올 연구의 출발점이 될 다양한 기초자료들을 제공하였다는 것이다. 번역현상을 연구하

4) 프랑스 명작소설 번역평가 사업단, 『프랑스 명작소설 번역평가 결과보고서』, 2011, 17쪽.

5) 영미문학연구회 번역평가사업단, 앞의 책, 35쪽.

6) 프랑스 명작소설 번역평가 사업단, 앞의 책, 17쪽.

면서 실증적 연구 과정을 거치지 않을 경우 그 연구의 토대는 허약할 수밖에 없다. 반면, 실증적 연구의 성과물인 기초자료들을 치밀하게 분석하여 그 의미를 읽어내지 못한다면 기초자료 그 자체는 말해주는 것이 별로 없다. 그런 점에서, 윤리적 관점이 아닌 역사적, 사회적, 문화적 맥락 내에 표절현상을 위치시키고 그 현상을 낳은 번역규범들을 찾아보려는 이번 시도는 이들 앞선 연구에 빚지고 있는 동시에 그들과 갈라선다.

3. 창작에서의 표절, 번역에서의 표절

표절이란 무엇인가? 창작에서의 표절과 번역에서의 표절 사이에는 어떠한 차별성이 존재할까?

표절이란 용어의 어원으로 거슬러 올라가보자. 표절의 어원은 라틴어 ‘플라지아리우스(plagiarius)’이다. ‘플라지아리우스’는 “사람으로부터 스스로에 대한 지배력을 박탈시키는 자”로, ‘플라지움(plagium)’은 “플라지아리우스들이 행하는 인신구속의 행위”로 정의된다.⁷⁾ 이 어원적 정의만 보면, 자유의 박탈, 예속과 구속의 상태로 그 본질이 요약되는 이 행위와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표절이 어떤 식으로 서로 연결이 되는지 그다지 선명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서기 1세기경 활동했던 시인 마르쿠스 발레리우스 마르티알리스(Marcus Valerius Martialis)의 에피소드는 둘 사이의 연관성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는 자신의 작품이 표절당한 것을 알고서, 「에피그램Epigram」에 실린 자신의 시들은 자기 자식이며, 그 자식들이 ‘플라지아리우스’에 의해 예속상태가 되었고, 결국 ‘플라지아리우스’의 소유인 것처럼 되어버렸다고 한탄했다고 한다. 결국 표절하는 자는 친권자, 즉 원저자로부터 친자, 즉 그의 작품을 빼내와 예속 상태로 묶어두는 자, 즉 자신의 소유물로 만들어버리는 자이다.

포스트모더니즘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면서 이다지도 연원이 오랜

7) 이일호, 김기홍, 「역사적 관점에서 본 표절과 저작권」, 『법학연구』 Vol. 19, No. 1, 2009, 311쪽.

“문학적 절도”에 대한 논의 역시 새로운 장을 맞게 된다. 가령, 보드리야르는 패러디, 표절, 패스티쉬에 대해, 패러디와 표절은 원전의 권위와 실체를 인정한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지만, 패러디가 공공연히 원작의 흔적을 남겨두면서 ‘없음’의 태도를 취한다면, 표절은 원작의 흔적을 철저히 감추면서 ‘없음’의 태도를 취한다는 차이점을 보여준다고 말한다. 그에 비해 패스티쉬에서는 비평적 거리 없는 짜깁기를 통해 원전의 비실재화가 일어나고 실재의 죽음은 실재화된 파생실재로 치환된다는 것이다.

사실, 패스티쉬를 포스트모던 시대의 특징으로서 역사성이나 독창성을 상실한 실패의 표본이라고 보는 제임슨이나 위에서 언급한 보드리야르의 논의를 봐도 알 수 있듯이, 표절이 포스트모더니즘 논의의 중심에 있다고는 할 수 없다. 포스트모더니즘 논의의 와중에서 패러디나 패스티쉬가 작가의 의도적 전략이나 미적 자의식의 산물로서 합법적 차용에 의한 모방, 혹은 공인된 위반행위로 받아들여진다면, 표절은 패러디나 패스티쉬와 마찬가지로 다른 텍스트의 인용이나 차용, 모방을 그 개념적 토대로 하고 있지만 숨기고 싶은 도용 행위로서, 그저 위반행위일 뿐이다.⁸⁾

저자의 죽음이 선포되고 원작과 원저자성이 흔들리며, 주체의 소멸이 운위되는 이 시대에도 표절의 구원가능성은 전무한 듯하다. 이제 창작에서의 표절 문제를 떠나서 번역에서의 표절 문제로 시선을 돌려보자.

번역의 경우 무엇을 표절이라고 할 수 있을까? 영미연 번역평가사업단이 제시한 구체적 기준을 보자. 첫째, 100% 그대로 베낀 판본, 둘째, 단어나 어휘의 일부 변형이 있다 하더라도 문장구조와 배열이 그대로인 ‘윤문’에 그친 경우, 셋째, 표절과 윤문으로 확인된 대목이 전체 텍스트 중 상당부분(대략 1/3~1/2이상)을 차지하는 경우에 모두 표절이라는 판정을 내린다.⁹⁾

8) 공중구, 「패러디와 패스티쉬 그리고 표절 그 개념적 경계와 차이」, 『국어국문학연구』, Vol. 19, 1997, 231-232쪽.

9) 영미문학연구회 번역평가사업단, 앞의 책, 20쪽.

영미연 번역평가사업단에서 제시한 세 개의 기준들 가운데에서도 표절의 기준을 구체적 수치로 제시한 3번째 기준에 대해서는 “1/3은 안 되고 1/4은 되는 이유가 뭔가”라는 즉각적인 반발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우리로서는 이 세 번째 기준에 대하여 평가기준이 자의적이라고 비판할 생각은 없다. 비평주체의 주체성이 개입할 수밖에 없고 개입해야만 하는 번역비평에서, 실체 없는 공허한 객관성과 그 객관성에 바탕을 둔 공정성을 요구하는 것보다 더 억지스러운 집착도 없을 것이다.¹⁰⁾

이 구체적인 수치는, 평가기준의 자의성을 보여주기보다는 오히려 연구자 집단이 심리적으로 표절에 대해서 용납할 수 있는 한계치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즉 특정집단의 표절에 대한 수용한계치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흥미롭다. 더 나아가 절반에 가까운 분량이 표절이면 번역작품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이 수치를 뒤집어서 생각하면, 근 절반이 표절이라도 번역작품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의미를 띠게 된다. 사실, 이는 창작에서라면 생각해볼 수도 없는 너그러움이다. 이러한 너그러움의 밑바탕에는 번역과 표절 사이의 경계가 불분명한 데에서 오는 당혹스러움이 깔려 있으리라는 추측이 충분히 가능하다.

4. 번역과 표절의 경계

왜 번역과 표절 사이의 경계 짓기가 창작과 표절 사이의 경계 짓기보다 더 까다롭고 미묘할까? 이는 번역이라는 글쓰기와 창작이라는 글쓰기 사이의 본질적인 차이가 표절 문제에 개입하기 때문이다.

가령, 오선민은 표절의 관점에서 근대 계몽기 번역 문제를 다루면서,

10) 우리가 선행번역본을 마구잡이로 베낀 표절 번역본과 선행번역본을 개선한 표절번역본의 경계를 규범적으로 제시하려는 시도를 하지 않는 이유이기도 하다. ‘좋은’ 표절과 ‘나쁜’ 표절을 가르는 어떠한 규범을 찾아내어 모든 번역본에 일괄적으로 적용하려는 시도는, 번역비평에서의 객관성 추구 자체가 유의미하지 않다는 우리의 입장과 양립할 수 없는 일임을 밝혀둔다. 번역비평에서의 객관성 문제에 관한 논의는 정혜용, 『번역논쟁』, 열린책들, 2012 중 「문학 번역 평가에서 문학 번역 비평으로」 참조할 것.

창작에서의 표절과 번역에서의 표절을 구분하지 않는다. 오선민이 제시한 표절 유형을 보면, 원작과 원저자를 밝히지 않은 번역, 이는 물론 표절이다. 원저자와 매개가 된 번역본의 역자 이름을 밝혔더라도 국문본의 역자 이름이 없거나 국문본의 역자 이름이 가인(假人)인 번역, 이 또한 표절이다.¹¹⁾ 그러니까 후자의 경우, 중역본의 역자가 원작도 저본으로 삼은 번역본도 숨기지 않았지만 떳떳하게 자신의 이름을 밝히지 않았기에 표절의 혐의를 받는 것이다. 달리 말해보자면, 실제로 절도 행위를 저지르지 않았지만 도둑처럼 얼굴을 가리고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도둑으로 몰린 셈이다. 오선민은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의역을 ‘암시적’¹²⁾ 표절, 직역을 ‘명시적’¹³⁾ 표절이라고까지 주장한다.¹⁴⁾ 이렇게까지 표절의 개념을 확장한다면, 존재론적으로 원작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지기 마련인 번역에는 늘 표절의 혐의가 따라다닐 것이다. 이쯤 되면 번역에서는 도대체 무엇이 표절이고 무엇이 아닌지 몹시 혼란스러워지며, 우리가 알고 있던 표절의 상식적인 기준 자체가 흔들리게 된다.

우리는 앞에서 원작의 흔적을 철저히 감추면서 원작을 차용, 인용 혹은 모방하는 행위로 표절을 정의하였다. 번역과 표절의 경계 짓기가 까다로우를 수밖에 없는 까닭은 바로 번역에서 발생하는 표절은 원작의 모방이

11) 오선민, 「표절의 관점에서 본 근대 계몽기 번역 문제」, 이혜순, 정하영 공편, 『표절·인문학적 성찰』, 집문당, 2007, 334쪽.

12) 오선민, 위의 책, 341쪽.

13) 오선민, 위의 책, 344쪽.

14) 오선민이 이렇게 의역과 직역을 표절과 연관시켜 대담한 주장을 펴는 데에는 마루야마 마사오의 비유를 비유로 받아들이지 못한 탓이 큰 듯하다. 마사오는 근대 지식인이 이질적 서양문명을 받아들이는 방식을 논하면서, ‘직역’과 ‘의역’을 나누고 ‘의역’을 다시 ‘의식적 의역’과 ‘무의식적 의역’으로 나누며, 직/의역을 비유적으로 사용한다. 마사오는 흔히들 ‘의식적 의역’에서 표절을 연상하지만 그것은 이쪽의 번역자가 저쪽의 이질성을 인식하고 그것을 동질성으로 대체하려는 의지를 갖고 있다는 점에서 엄연히 표절과는 다르다고 설명하고 있을 뿐이다. 요컨대 오선민은 암시적 표절과 명시적 표절에 관한 자신의 주장에 권위를 부여할 생각으로 마루야마 마사오의 의역론을 끌고 들어왔지만, 패착을 둔 셈이다. (마루야마 마사오의 주장에 대해서는, 마루야마 마사오, 『<문명론의 개략>을 읽는다』, 문학동네, 2007, 52-53쪽을 참조할 것.)

아니라는 점에 있다. 창작에서의 표절이 원작의 모방인데 반하여 번역에서의 표절은 그 자체로 이미 원작의 모사물인 선행번역의 모방이다. 즉 창작에서 표절 여부 판정의 기준이 되는 원작의 권위 부재 상태에서, 모방의 모방이 일어난 것이다. 바로 이 원작의 권위 부재가 번역에서의 표절 여부 판정에 혼란을 가져온다. 이 상황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극단적인 예를 하나 들자면, 서로 다른 두 번역자가 각각 원작을 모방했을 때, 두 번역본 사이의 일치도가 영미연에서 제시한 표절의 기준인 1/2~1/3 이상일 경우가 확률적으로는 얼마든지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런 까닭에, 선행번역본을 표절한 표절번역본인지 혹은 원작을 직접 번역한 독자적인 번역본인지 판가름하기란 창작에서보다 훨씬 더 까다롭다. 프랑스 명작소설 번역평가단이 굳이 ‘표절’이라는 용어를 피하고 가치중립적인 ‘영향관계’라는 용어를 선택하며 표절문제에 대해 영미연 번역평가 사업단보다 유연하고 조심스러운 입장을 취한 이유에는, 바로 번역과 표절 사이의 경계가 불분명하다는 점도 들어있을 것이다. 우리가 이처럼 흔들리는 경계에서 마주하게 되는 것은 바로, 원작의 모방임이 드러나면 표절이 되는 창작에서와는 달리 번역에서는 원작의 모방임을 보여줘야 표절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역설이다.

번역에서의 표절은 모방의 모방, 모사물들 간의 모방이라는 역설 옆에는 또 다른 역설, 번역에서의 표절 개념 자체를 뒤흔들어놓을 보다 근본적인 역설이 존재한다. 이 역설은 번역의 존재조건에서부터 비롯된다. 번역은 기본적으로 파생적 글쓰기이다. 원작이 없으면 존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작을 모방해야만 번역의 자격을 갖추게 되고, 원작에 근접한 모방일수록 완전에 가까운 번역이라는, 우리의 번역 의식 속에 튼튼히 뿌리 내린 하나의 번역 이데올로기가 존재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자면, 번역이 생겨난 이래로 번역에 관한 담론의 중심에 있으며 번역의 이데아를 구현하는 개념으로 간주되는 등가란, 결코 도달할 수 없는 원작의 완전한 모방에 다름 아닐지도 모른다.

바로 여기에서부터 우리의 고민이 생겨난다. 영미연 번역평가사업단

이 그랬듯이 기계적으로 표절기준을 적용할 경우, 표절이라는 단일한 카테고리 안에는 앞선 번역본과의 관계 맺음 양상이 극과 극인 작품들이 모두 섞여 들어오게 된다. 한 극단에, 앞선 번역본을 모방한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듯 심지어 기존에 없었던 오류들을 덧붙인 표절 번역본이 있는가 하면, 또 다른 극단에는 앞선 번역본의 오류들을 바로잡아 가면서 모방한 표절 번역본들이 존재한다. 후자의 유형에 속하는 번역본들은, 앞선 번역본들과의 관계에서 보면 표절이 분명하나, 원작과의 관계에서 보면 그 번역본들의 오류를 바로잡음으로써 원작의 보다 완전한 모방을 향해 나아간 셈이다.

그렇다면, 소위 선행번역본을 개선했다는 번역본들은 번역이라는 글쓰기의 본질에 충실하다는 점에서 수용가능한 번역일까? 아니면 무슨 말로 미화하든 표절이라는 점에는 변함이 없는 만큼, 수용가능성을 운위하는 것 자체가 궤변에 지나지 않는 걸까? 그에 대한 대답은 문학 번역을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확연히 달라질 것이다. 단지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선행번역본의 모방과 수정을 통해 등가라는 이상을 향한 도도한 재번역의 흐름에 편승한 표절번역본들과, 선행번역본의 단순한 모방을 넘어서지 못하여 절도에 그치고 만 표절번역본들, 이 두 가지 유형의 번역을 한데 묶어 표절이라는 단일 카테고리 안에 마구잡이로 쓸어 담을 때, 우리 번역의 역사를 좀 더 섬세하게 읽어낼 수 있는 가능성을 지레 차단해 버리는 꼴이 된다는 것이다.

이제, 인정할 수도 없고 내칠 수도 없어 우리를 거북하게 만드는 이 독특한 유형의 표절 번역본들을 번역 역사의 심연으로부터 끌어올려 보자. 대체 어떻게 표절과 번역의 경계에 서 있는 글쓰기가 그다지도 대규모 모로, 그다지도 오랜 기간 용인될 수 있었을까? 우리의 번역의식의 원형들이 형성되기 시작하는 시기로 거슬러 올라가본다.

5. 근대 계몽기와 번역의식의 형성

1909년, 최남선이 주도적으로 이끌었던 잡지 『소년』 5월호에 「세계적(世界的) 지식(知識)의 필요(必要)」라는 글이 실린다.

世界の 大局은 眼前에 展開하였도다.

濟物浦口에 漲來하는 波浪은 이미 지중해수의 鹽分이 混和하였고 白頭山外에 響動하는 汽笛은 오래 西北利風의 燥氣를 傳播하였는데 鐘路街衢에는 ‘사하라’ 沙漠의 細沙가 墨軀子의 靴底에서 落下하고 南山樹木은 ‘유로파’ 中原의 炭氣를 白人의 口裘로서 吸收하니, 於乎 우리 半島도 이미 純粹한 韓天韓地下에 있음이 아니로다.

[...]

此로써 觀하면 世界的 知識을 吸收함은 世界를 知하려 함이 아니라 곧 우리 大韓을 知함이고, 他人에게 博學多聞을 誇示코자 함이 아니라 곧 自己가 事理物情에 暗昧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 此等事는 우리로 하여금 世界的 知識의 習得을 時急히 催促하난 者이라.

於乎, 世界的 知識이 없이는 新聞一片을 分明히 閱讀할 수 없이 된 吾人이 어찌 이를 收得하기에 毫末이라도 等閒이 하리오.¹⁵⁾

자신만의 시공간을 구축하고 있던 ‘소중화 제국’ 조선은 견잡을 수 없이 밀려들어오는 외세의 물결에 휩쓸리게 되면서 자신만의 시공간에서 빠져나와 타자와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된다. 자발적이었던 비자발적이었던 이렇게 일단 관계망 속으로 들어가 자신을 재정립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 이상, 이제 저쪽 세계에 대한 앎이 이쪽 세계의 생존에 필수적인 요소로 떠오른다. 비록, 정선태가 지적하듯 위의 글

15) 정선태, 「근대계몽기의 번역론과 번역의 사상」, 『근대의 어둠을 응시하는 고양이의 시선』, 16-17쪽에서 재인용.

에 번역에 대한 언급은 단 한 마디도 없지만¹⁶⁾, 근대화를 지탱할 물질 토대가 전혀 갖춰지지 못한 상황에서 가능한 한 빨리, 가능한 한 많이, ‘세계적 지식’을 습득해야 하는 절박한 현실에 부딪혀, 번역이 이상적 해결책으로 부상하는 것은 당연하다. 실제로 근대 계몽기의 신문, 잡지에는 통번역가 양성과 번역기관 설립을 촉구하는 내용의 글들이 심심찮게 실렸으며, 근대 계몽기의 진보적 지식인으로 행세하던 사람들이라면 거의 예외 없이 번역과 출판 사업에 직, 간접적으로 관여하였음은 우리 모두 잘 알고 있는 사실이다.¹⁷⁾

위의 글이 우리에게 흥미로운 것은, 오늘날 외국문학을 바라보는 시각과 그 당시 외국문학을 바라보는 시각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엿보게 해 주기 때문이다. 번역이 근대화 작업과 불가분의 관계를 이루며 가장 효율적인 근대화의 수단과 방법으로 인식된 그 당시 상황에서 외국문학 번역에 부여된 역할과 기대가 오늘날의 그것과는 확연히 달랐을 것이다. 오늘날에는 ‘외국문학’ 번역이 논의의 중심에 설 때 ‘문학’에 방점이 찍힌다면, 그 당시에는 ‘외국’으로 추가 더 기울었다고나 할까. 오늘날에는 외국문학이든 자국문학이든 문학작품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질 때 이 논의의 중심을 작품성이 독점한다. ‘작품성’이라는 개념의 실체에 대한 끊임없는 문제제기가 이루어진지 오래지만, 작품성이라는 것이 문학 생산과 소비에 있어서 실제로 어느 정도의 힘을 발휘하는지도 알 수 없지만, 작품성은 공식적 문학 담론의 장에서 여전히 기세가 등등하다. 그 당시에도 과연 그랬을까?

1908년 11월 『대한매일신보』 제 1면에 실린 논설 「연극장에 독감이」를 보면, 신문학의 선구자 이인직에 대한 혹평이 실려 있다. 논설의 필자

16) 정선태, 위의 책, 17쪽.

17) 이 주제에 관한 자료들은 김옥동, 『번역과 한국의 근대』, 소명출판, 2010을 참조할 것. 마루야마 마사오 역시 일본 또는 동아시아의 공통의 경험인 개국 문제를 다루면서, 고도로 발달한 이질 문명과의 급격한 접촉의 시대를 맞아 그런 이질적 서양문명의 번역자이자 동시에 전파자라는 사명이 그 시대를 살아간 지식인에게 주어졌음을 지적한다. (마루야마 마사오, 앞의 책, 50쪽.)

는 『라빈슨표류기』를 “저술하여 국민의 겁업는 마음을 고동함도 가하고”, 『약안정덕구국전』을 번역하여 “국민의 인국성을 굳게함도 가하거늘”, 하필이면 “첩을 위하여 변호하는 귀신의 소리라는 소설등을 저술하여 사회상에 도덕을 해롭게하며 보는 사람으로하여금 정신을 혼미케”하느니라며 개탄하고 있다.¹⁸⁾ 이 논설의 필자가 『로빈슨 크루소』나 『혈의 누』라는 문학작품을 평할 때나 문학작품이 아닌 잔 다르크의 전기를 평할 때나 일관되게 국민계몽과 부국강병의 정신을 평가기준으로 삼는 모습은 흥미롭다. 이는 근대계몽기 초기에 집중적으로 번역되었던 역사물이나 위인전에 바라는 것과 문학작품에 바라는 것 사이에 별다른 차이가 없었음을 알려준다.

1909년 1월 『대한매일신보』에 실린 논설 「번역가에게 일고함」에서는 그 태도가 더 노골적으로 드러난다. 필자는 외국의 것이라면 아무거나 번역하여 들여오는 행태를 꾸짖으며 ‘善美’한 것과 그렇지 못한 것을 구별할 줄 알아야 한다고 힘주어 말한다.¹⁹⁾ 물론 이 ‘선미’의 기준은 ‘작품성’이 아니라 ‘국익’이다. 요컨대 19세기 말엽이나 20세기 초엽에는 외국 문학작품과 그 번역에서도 공리성과 효용성에 대한 기대가 작품성에 대한 기대를 훌쩍 넘어섰던 것이다. 그도 그럴 것이 서구 문명에 대한 지식 쌓기 속도전에 돌입한 상황에서, 문학 작품은 순전히 문학작품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서구사회에 대한 구체적이고 생생한 지식을 제공하는 돌도 없는 자료이기도 했을 테니 말이다.

1910년대 말에 이르러 외국문학을 전문적으로 소개한 문예 주간지 『태서문예신보』가 창간되고 『폐허』, 『백조』 등의 문학동인지와 문예지가 쏟아지면서 역사물이나 위인전의 연장선에서 논의되던 문학작품들이 문학 텍스트로서의 정체성을 뚜렷하게 드러내기 시작한다. 그렇다 하더라도 외국문학 번역에 부여된 역할이 근본적으로 달라진 것은 없었다. 단지

18) 『대한매일신보』 론설, <연극장에 독감이> (1908. 11. 8. 426호) (오선민, 앞의 책, 335쪽에서 재인용)

19) 김옥동, 앞의 책, 57쪽에서 재인용.

국익에 도움이 될 것을 요구받던 것에서 근대 문학과 표준어 정립에 도움이 될 것을 요구받는 것으로 그 봉사 범위가 좁혀졌을 뿐이었다.

이렇듯 서구의 번역을 통해 근대화를 시작해야 했던 대다수 동아시아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한국에서도, 외국 문학은 무엇보다도 자국 문화와 자국 문학을 살찌우기 위해 없어서는 안 될 자양분이자 공동의 자산으로 인식되었다. 일단 외국 문학이 도착문화권 내에 받아들여져서 공동체의 공동의 자산이라는 지위를 획득하게 되면, 공동체는 이 공동자산의 손실을 막고 공동자산을 불려나가야 하는 사회적 책무를 번역가에게 지우게 되며, 이 임무는 선대 번역가의 손에서 후대 번역가의 손으로 중단 없이 넘어가야만 한다. 우리는 이처럼 근대 계몽기에 형성되었던 독특한 번역 이데올로기가 근 1세기가 흐른 뒤에도 우리의 번역의식 저 밑바닥에 원형처럼 잠재되어 있다고 생각한다.²⁰⁾

다음의 글은 한국 번역문학의 발전에 뚜렷한 공헌을 한 김화영이 『이방인』 번역에 붙인 옮긴이의 글이다.

[...] 우리나라가 전쟁을 겪고 있던 1950년대, 이휘영 교수가 처음으로 <이방인>의 번역을 세상에 내놓은 이래 여러 차례의 서로 다른 번역들이 세상에 나왔다. 특히 이휘영 교수의 명역은 신화적이었다.

[...]

그러나 30여 년의 세월이 지나면서 언어의 관습도 달라졌고, 작품 해석의 방향도 조금씩 변하고 보완되었다. [...] 특히 홍승오 교수의 현대적이고 탁월한 번역에 많은 도움을 입으면서 이휘영 교수의 번

20) 물론, 이 근대 계몽기에 형성되었던 번역이데올로기는 근 1세기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좀 더 복잡하고 교묘해진 모습으로 발현된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문학장에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게 된 문학성과의 어정쩡한 타협이라고 할 수 있으리라. 요컨대, 번역문학에서도 비록 번역작품 자체의 문학성이라기보다는 원작의 문학성에 관한 논의가 주를 이루었을망정 문학성의 권위를 받아들이게 된다. 우리가 번역문학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원작의 문학성에 미치지 못하는 자신의 번역에 대한 자책과 의례적 겸양의 말은 그 단적인 예가 될 것이다. 문학성과의 이러한 허울뿐인 동거로부터 번역도 하나의 창작이라는 의식이 싹트기까지 또 오랜 시간이 흘러야 했다.

역을 재해석했다.

[...]

지금은 고인이 되신 은사 이휘영 교수 영전에 이 보잘것없는 번역을 감사와 존경의 뜻과 아울러 바치고자 한다.²¹⁾

김화영은 역자의 글에서 거의 늘 자신의 번역에 영향을 준 선행번역본을 공개적으로 언급하며²²⁾, 그 선행번역본에 자신의 역자로서의 능력을 보태어 얻어낸 결과물이 자신의 번역임을 뚜렷하게 밝힌다. 번역자가 작가로서의 자부심을 갖고 자신의 번역관과 번역방식, 번역과정에 대해 의견을 내는 일이 흔치 않았던 과거의 번역풍토 속에서 김화영의 공개적 발언은, 앞선 번역본들을 표절하는 동시에 개선했던 수많은 다른 표절번역본들의 존재와 겹쳐지면서 의미심장한 상징성과 대표성을 띠게 된다. 동시에, 이들에게 번역이란 선행번역본에서부터 출발하여 선행번역본을 비판적으로 계승 발전시키는 행위였으리라는 우리의 추정에 힘을 실어 준다.

6. 번역, 공동의 글쓰기

우리의 번역의 역사를 넘다보면, 똑바로 쳐다보기가 민망스러워서 시선을 돌리고 싶은 고비 고비들을 만나게 된다. 그 고비마다 웅크리고 있는 표절번역본들은 우리 모두의 치부인지라 가능하면 시간의 작용에 힘입어 어서 망각하고 싶기만 하다. 문제는 그 속에 우리에게 수치심이 아닌 좀 더 복잡한 감정을 강요하는 또 다른 유형의 표절본들이 함께 섞여

21) 알베르 카뮈, 김화영 역, 『이방인』, 책세상, 1995, 3-4쪽.

22) “이번 새로운 역본을 준비하면서 역자는 기존의 몇 가지 번역본들을 참고하였다. 그 중 특히 삼중당문고판 이휘영 교수의 번역에서 많은 암시들을 받았다. 그러나 역자는 원문에 충실하면서도 오늘날의 어법에 맞도록 우리말을 다듬으려고 노력했고 무엇보다도 역자 나름대로의 작품 해석에 의거하여 옮기려고 고심했다.” (알베르 카뮈, 『페스트』, 김화영 역, 책세상, 1992, 9쪽. 김화영이 번역한 『마담 보바리』에서도 비슷한 형식으로 작성된 역자의 말을 만날 수 있다.)

있다는 것이다. 앞선 번역본들을 표절한 동시에 극복한 번역본들, 이들은 켜켜리워서 피하고 싶은 존재들이기도 하다. 이 글의 출발점이 손가락에 든 작은 가시마냥 불편한 그 표절본들의 존재였음을 부인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이 글을 번역에서의 표절행위에 대한 면죄부로 오인하는 일은 없기를 바란다. 이 글은 그저, 어쩌서 그런 특별한 유형의 표절번역본들이 한국이라는 특정 공간에서, 장기간에 걸쳐서, 대규모로 생산되고 대규모로 소비되었는지를 알아가는 여정이었다. 여정의 끝에 다다른 지금, 이 특별한 표절 현상 속에서 작동하고 있는 규범, 투리의 말을 빌리자면 “한 공동체가 공유하는 번역에 대한 일반 가치 또는 관념(어떤 것이 옳고 그른지, 적절하고 부적절한지)”²³⁾이라는 그것에 언어의 옷을 입힐 일이 남았다. 우리는 표절 현상의 근저에서 작동하고 있는 그것을 <번역은 공동의 글쓰기>라는 인식>으로 정의내리겠다. 이러한 인식의 뿌리는, 앞에서 밝혔듯이, 근대 계몽기로부터 뻗어있었다.

식민의 경험을 갖고 있고 근대화가 시급한 과제였던 한국에서 번역은 일차적으로 서구문물 수용의 효과적인 통로로서의 기능을 담당해야 했다. 그 분야가 문학이라고 해서 예외는 아니어서, 수용자가 자국 문학에 요구하는 일차적 기능이 문학적 가치의 최고도의 실현이라면, 번역 문학은 서구 문물에 대한 호기심을 만족시켜주는 것만으로도 수용자의 기대치를 상당 부분 충족시켜 줄 수 있었다. 이는 자국 문학의 경우 문학적 완성도를 묻는 비평 행위가 문학 장(場) 내에 확실하게 자리 잡은 반면, 번역 문학의 경우 비평 행위가 전무하다시피 했던 것에서도 확연히 드러난다. 요컨대 이스라엘 학파의 이븐-조하(Even-Zohar)의 용어를 빌자면, 폴리시스템 내에서 번역문학과 자국문학이 차지한 각각의 기능과 위상

23) “Sociologists and social psychologists have long regarded norms as the translation of general values or ideas shared by a community — as to what is right and wrong, adequate and inadequate — into performance instructions appropriate for and applicable to particular situations, specifying what is prescribed and forbidden as well as what is tolerated and permitted in a certain behavioral dimension.” (Toury, G., *Descriptive Translation Studies*, John Benjamins B.V., 1995, pp. 54-55.)

이 다르며, 따라서 번역문학에 바라는 것과 자국문학에 바라는 것이 같지 않았다는 것이다.²⁴⁾

번역 현상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번역에 관한 이론적 담론을 활발하게 쏟아내는 지금, 번역도 원작에서 파생되기는 했으나 그 자체로 독자적인 문학작품이며, 번역주체 역시 작가나 마찬가지로 글쓰기 주체로서 자신만의 고유한 글쓰기를 갖는다는 인식이 급속도로 퍼져나가고 있다. 이러한 인식은 한국의 번역학계에서 생산된 이론적 담론들 곳곳에서 만날 수 있다. 번역 또한 독자적 작품이라는 인식이 힘을 얻어 가는 과정, 이것은 곧 번역은 공동의 글쓰기라는 인식이 힘을 잃어 가는 과정이기도 하다. 결국, 우리가 표절에 관한 학계의 담론들을 검토하면서 목도했었던 표절에 관한 윤리적 단죄는, 이러한 번역규범들 간의 길항작용과 무관하다고 할 수 없다.

24) "Whether translated literature becomes central or peripheral, and whether this position is connected with innovatory ("primary") or conservatory ("secondary") repertoires, depends on the specific constellation of the polysystem under study." (Even-Zohar, I., "The Position of Translated Literature within the Literary Polysystem", Ed. L. Venuti, *The Translation Studies Reader*, Routledge, 2004, p. 200.)

1. 작품

알베르 카뮈, 김화영 역, 「이방인」, 책세상, 1995.

알베르 카뮈, 김화영 역, 「페스트」, 책세상, 1992.

2. 단행본

김병철, 『한국근대번역문학사연구』, 을유문화사, 1975.

김옥동, 『번역과 한국의 근대』, 소명출판, 2010.

마루야마 마사오, 『<문명론의 개략>을 읽는다』, 문학동네, 2007.

영미문학연구회 번역평가사업단, 『영미명작, 좋은 번역을 찾아서』, 창비, 2005.

정혜용, 『번역논쟁』, 열린책들, 2012.

프랑스 명작소설 번역평가 사업단, 『프랑스 명작소설 번역평가 결과보고서』, 2011.

3. 논문

공종구, 「패러디와 패스티쉬 그리고 표절 그 개념적 경계와 차이」, 『국어국문학연구』, Vol. 19, 1997.

오동석, 「표절, 침묵의 카르텔과 윤리의 침묵」, 『인물과 사상』, 인물과 사상사, 2006.

오선민, 「표절의 관점에서 본 근대 계몽기 번역 문제」, 이혜순, 정하영 공편, 『표절-인문학적 성찰』, 집문당, 2007.

이일호, 김기홍, 「역사적 관점에서 본 표절과 저작권」, 『법학연구』 Vol. 19, No. 1, 2009.

정선태, 「근대계몽기의 번역론과 번역의 사상」, 『근대의 어둠을 응시하는 고양이의 시선』, 소명출판, 2006.

Toury, G., *Descriptive Translation Studies*, John Benjamins B.V., 1995.

〈Abstract〉

Translational Norm in Plagiarism - Translation as Co-writing

Hyeyong Jung
(Seoul National University)

Currently, most of the theoretical discourses about plagiarism produced by the academic community are focused on ethical problems. But adhering to the ethical point of view only points out the absence of moral in plagiarism and regulates it as an subject of conviction. This perspective also blocks the way to an in-depth understanding of this complicated phenomenon such as how and why this custom of plagiarism could lasted for such a long time in Korea's translating history, what translating ideology was behind this complex phenomenon, or if it is proper to consider a simply plagiarized book as the same as a book plagiarizing its precedent translated copies but that has been improved.

This article deviates from the ethical point of view concerning plagiarism and contemplates plagiarism as a special phenomenon in Korea's translation history. It aims to reveal the tight relationship between this tenacious custom and the distinctive translating ideology formed in the modern enlightenment period.

Keywords : plagiarism, ethical point of view, translating ideology, translational norm, modern enlightenment period

논문접수일 : 3.15 / 심사기간 : 3.16 - 4.5 / 게재확정일 : 4.10
